

신앙칼럼

젊은 시절의 하느님은 나에게 어떤분이셨나?

“사랑의 하느님” 이시며 “자연 과학을 초월 하시는 하느님”

저의 집안은 전통적으로 유교였습니다. 별 뚜렷한 종교에 대한 관심이 없었습니다. 사춘기를 거치며 당시(70년 대)에 캠퍼스에서는 독재 타도를 외치며 매 학기 데모가 유행하였고, 실존 철학자들의 저작과 불교 서적들을 읽으며 가끔씩 친구들과 밤을 새우며 인생에 대하여 고민들을 토론했며 지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꽤 아름다운 젊은 시절의 열정과 고민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신과 종교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졌었습니다. 집에서 가까운 절두산 성당을 산책할 때면 미사 중의 경건한 신도들을 볼 수 있었으며 아름다운 성가들이 감동을 주었던 것 같습니다.

현재의 아내와 연애 중에 “젊은이를 위한 신앙 강좌”에 초대해 주어 6개월 간의 가톨릭 신앙에 대하여 공부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공산주의자에서 전향한 양한모 선생님이 열정적으로 강의를 해주셨는데 즐겁게 교리를 들으며 가톨릭에 대한 나름 깊은 공부를 하였으나 우여 곡절 끝에 한 톨을 더 공부한 후인 1979년 1월 25일 바오로 개종 축일에 저 홀로 영세를 받았습니다. 이 때 저에게 하느님은 “사랑의 하느님” 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바쳐 사랑해 주시는 분이었습니다.

저는 자연과학 중에서 물리학을 좋아하였습니다. 물리학이란 자연 현상을 탐구하는 학문인데 그 대상이 실로 넓고 광범위하여 온 우주를 다 포함 시킵니다. 그 우주의 운행 원리들을 몇 개의 물리 법칙으로 파악을 한다고 하니 놀라웠으며 제대로 배워 두면 매우 유익할 것 같았습니다. 사실 유익 합니다. 별들의 운행 뿐만 아니라 원자 세계에 까지 정확한 예측이 가능하며 그 원리를 이용하여 온갖 발명품들 -자동차, 휴대폰 등이 등장하게 되었으니까요. 그러다 보니 제가 보기에 요즈음 인간이 사뭇 교만해진 것 아닌가 우려됩니다.



하느님은 이 자연을 있게 만드신 분 입니다. 지어 내실 때 우리 인간이 자연의 생성 원리를 이성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허락 되었습니다. 아인슈타인이 말했다고 하는데 “정말로 신비로운 것(이해할 수 없는 것)은 이 우주를 우리가 이해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80년대 들어서 저는 물리학을 더 공부하기 위해 미시건주의 한 대학으로 유학을 왔습니다. 디트로이트에서 한 시간 정도 서쪽에 위치한 앤아버라는 아름다운 캠퍼스 타운에서 살았는데 한국 유학생들도 꽤 많았습니다. 디트로이트 한인 성당에는 한국 신부님이 사목을하고 계셨고, 우리는 앤아버 공소를 이루어 한달에 한 번 정도 씩 방문해 주시는 한국 신부님과 함께 미사를 드렸으며, 성경 공부, 성령 기도회 등으로 학생들끼리 나름 신앙을 잘 키워 나갔습니다.

기초 과정을 마치고 학위 테마를 잡는데만 수년이 걸렸습니다. 테마는 매우 낮은 온도인 영하 270도 부근에서 일어나는 물리 현상을 실험 관측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온도를 낮게 유지하려면 가격이 비싼 액체 헬륨을 매일 한번 씩 채워 넣어야 하며 주위의 잡음이 비교적 적은 밤과 새벽에 실험을 하며 수 개월 지나면서 많이 지쳐 했습니다. 가끔씩 진공 장치나 실험 장치에 문제가 생기면 온도가 급격히 변하고 실험 환경이 바뀌어 잘못하면 낭패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실험하는 동안 내내 매우 긴장이 되었습니다. 실험 계획을 세우고 실험 샘플을 만들고 예비 실험하느라 수년 걸렸고 마지막 데이터를 완성하는 단계에 이르러서 하나라도 잘못 되면 모든게 물거품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불안에 떨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남들이 가보지 않은 이러한 미지의 세계를 넘나들며 자연 세계를 탐구하다 보니 어쩌면 그곳에서 하느님의 끝 자락이라도 스칠 수 있는 기회가 생기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수 개월을 밤을 새워가며 하다가 보니 하느님을 만나기 보다는 맨날 고생하며 힘들어하는 나 자신을 만날 뿐이었습니다. 남이 가보지 않은 길을 갈 때 볼 수 있기를 희망했던 신 혹은 하느님 대신 여전히 거기에는 자연의 세계에서 보내오는 측정 데이터와 힘겹게 실험 중인 인간 - '나'를 볼 수 있었을 뿐 이었습니다.

결국 자연과학적 실험을 통하여 하느님을 포착한다는 것은 완전히 잘못된 생각이며 태도라는것을 뒤늦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느님은 절대로 인간의 무슨 측정 장치 같은 것으로 측정되지 않으며 포착 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연 과학을 초월하시는 하느님” 이시며, 그것을 있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러한 소박한 바람이 저의 힘겨운 실험 과정을 잘 극복하고 탐구하는데 동기 부여는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이제와서 반성을 해 보면 이런 것들은 어리석고 교만한 생각이며 지식인들이 쉽게 빠질 수 있는 허영심(혹은 속임수)같은 것 이었다고 생각

합니다. 남들이 가보지 않은 곳에 간다는 허영심에서 비롯된 생각입니다.

마치 인류 최초의 우주인인 소련의 가가린이 대기권 밖으로 나갔다 와서 “거기에도 신은 안계셨다” 라고 말 했다는데 이와 비슷합니다. 허영심에 차 있는 사람에게나 교만한 자에게는 하느님께서서는 숨기십니다. 제가 오히려 겸손한 마음으로 임하였다면 아마도 실험도 순조로웠을 것이며 그곳에서 펼쳐지는 하느님의 권능을 좀 더 잘 알 수있었을 것이라 생각 합니다. 이러한 허영심(혹은 속임수)과 교만은 살아가면서 항상 내 옆에서 도사리고 있는 (뱀의(?)) 유혹이었으며 아주 오랜 동안 지속 되었습니다

- 평협회장 채희백 바오로.

연중 제 5주일

설 미사

2024년

02월 04일

미사 시간 안내

평 일 (영어미사)

화요일-7:00 PM

수 ~금-9:00 AM

주일(한국어/영어 미사)

토(특전/영어)-4:00PM

일요일(영어)-9:00AM

(한국어)-11:30AM

고해성사-11:10AM

사무실 안내

주소: 122 High Street
South Bound Brook,
NJ 08880

#Tel : 732-356-1037
#Email: office@edisonkcc.org
근무시간: 화-금요일
(9AM~2PM)

에디슨한인천주교회

주임신부

이용범 사도요한

본당부제

윤석로 이나시오

평협회장

채희백 바오로



에디슨한인천주교회

OUR LADY OF MERCY PARISH

너는 복이도 일 것이다
창세기 2.2



< 이번 주 전례안내 >

제 1독서 민수기 6,22-27

화답송 시편 90(89),2와 4,5-6,12-13,14와 16(© 17-)



후렴. 주 하느님의 어지심을 저희 위에 내리소서.

제 2독서 야고보서 4,13-15

복음 환호송 시편 145(144),2

○ 나날이 당신을 찬미하고 영영 세세 당신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복음 루카 12,35-40

성가 입당 329 봉헌 217, 332 성체 504, 162 파견 68

새로 오신 분, 방문해 주신분, 오랜만에 오신 교우들 환영합니다!

미사지향 (연미사)

- 양행자(스콜라스티카) - 가족, 박 안나
- 오경선(원선시오) - 가족
- 선점환(마리아) - 가족
- 김진철(요한) - 가족
- 김명자(헬레나) - 가족

미사지향 (생미사)

- 윤석로(이나시오) 부제님 - 성순영(라파엘라)
- 염은미(클라라) - 가족
- 오애희(율리아나) - 박 안나
- 윤 넬리 - 가족
- 오경숙(세실리아) - 한 크리스티나
- 채우진(사무엘) - 가족

지난 주 우리들의 정성

• 1/28 주일 헌금 (102명)	\$997
• 교무금.....	\$1,320
김동근(1-6) 한철희(2) 임문수(2)	
안청자(1) 양영길(1-2) 이광재(1-2)	
이보현(2) 염기선(1)	
• 감사헌금.....	육글라라(\$500)

환우들의 빠른회복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 하건철(안토니오) 오용덕(헨리코) 오애희(율리아나)
- 염은미(클라라) 하준석(마테오) 곽 율리안나
- 송희수(글라라)

레지오 마리에 교육협의회 캐나다(몬트리올, 퀘벡) 성지순례

- 일시 : 2024년 4월 25일(목) - 4월 27일(토)
- 인원 : 선착순 35명
- 참가 자격 : 레지오 행동단원 및 협조단원(견는데 지장이 없으신 분)
- 신청 마감 : 2024년 2월 25일까지
- 지도 신부: 장재명(파트리치오) 신부
- 참가비 : \$800 (2박 3일 전용차량, 호텔, 식사 포함)
- 문의 : 꾸리아 단장 채미영(테레사)

2024 Bishop's Annual Appeal

〈Stay with us, Lord : Renew our Hearts and Send Us on Mission〉
 • 메타천 교구내 사목, 교육, 자선활동을 지원하는 2024 Bishop's Annual Appeal에 많은 성원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2024년 분당 목표 금액은 \$37,000입니다. 목표금액 달성시 초과금의 50%는 분당으로 귀속됩니다

2023년 세금 보고용 교무금 납부 증명이 필요하신 분들은 사무실로 신청바랍니다.

모든 친교 후 청소 철저

1. 모든 쓰레기통은 비우고 새 비닐백으로 쥘주세요.
2. 재활용통에 쓰레기를 버리지 마세요.
3. 재활용 통에는 병, 캔, 깨끗한 종이 만 넣어주세요.
4. 바닥 청소
5. 마지막 퇴소자는 소등 및 문 단속 확인 바랍니다.

2차 헌금

- 2월 4일 : Catholic Spirit (교구 가톨릭 신문사 지원)
- 2월 11일 : 유타리티

설날 합동 위령미사 신청

• 2월 4일(주일) 미사는 설날 합동 위령미사로 봉헌됩니다. 설 미사 후에는 설맞이 음식 나눔과 세배 행사가 친교실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많이 참석하시어 즐거운 설 명절 보내시길 바랍니다.

재의 수요일 미사 안내

- 2월 14일 오전 9시 한/영 통합 미사 (성당)
- 2월 14일 저녁 7시 한/영 통합 미사 (경당)

사순시기 십자가의 길 기도 안내

• 사순시기 동안 매 주일 11시부터 십자가의 길 기도가 있습니다.

친교 봉사 일정

- 2/25 이스트브런스윅 • 3/17 피스브릿지 • 4/21 노스브런스윅

2월 빵과 포도주 봉헌 봉사자

- 2/4 박락준, 이서형 • 2/11 김순옥, 김소희
- 2/18 우성현, 임영진

성지 가지 수거

• 오는 2월 14일(수요일)은 사순시기 시작되는 재의 수요일입니다. 각 가정에서 보관중인 성지가지는 2월 11일까지 성당으로 가져와 주시기 바랍니다.

Rosary Altar Society 모임

- 일시 및 장소 : 2월 4일 (주일) 오전 10시 친교실
- 미팅 시간 동안 친교실 사용은 가급적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당 교우 주소록 갱신

• 주소록 작성을 완료하신 후 각 구역장님께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꾸리아 월례회의

• 일시 및 장소 : 2월 11일(주일) 미사 후 친교실 회의실

2/4분기 전체 사목회의

• 일시 및 장소 : 2월 18일(주일) 미사 후 친교실 회의실

에디슨 구역모임 (구역장 : 성순영 라파엘라)

• 일시 및 장소 : 2월 4일(주일) 미사 후 친교실

노스 에디슨 구역모임 (구역장 : 이광호 다니엘)

• 일시 및 장소 : 2월 24일(토) 오후 4시, 오용덕(헨리코) 형제님 댁

제임스 체키오 주교님 미사

• 일시 : 2월 25일 (사순 제2주일) 오전 10시 30분 한영 통합 미사
 • 제임스 체키오 주교님께서 우리 성당에 오셔서 미사를 봉헌해 주십니다. 교우분들의 많은 참여와 기도 부탁드립니다.

성모회 주관 테네시 농산물 주문하신 분들은 친교실에서 픽업바랍니다.

• 유스그룹 이가현(카타리나), 박서진(사무엘) 학생이 2024년 메타천 교구 St. Timothy 상을 수상하였습니다. St. Timothy 상은 매년 교구 내 고등학생들 중 신앙의 모범이 되며, 그리스도교적 리더십을 발휘하는 학생들에게 수여되는 상입니다.

제1독서: 민수기6,22-27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일러라. ‘너희는 이렇게 말하면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축복하여라.’ 주님께서 그대에게 복을 내리시고 그대를 지켜 주시리라. 주님께서 그대에게 당신 얼굴을 비추시고 그대에게 은혜를 베푸시리라. 주님께서 그대에게 당신 얼굴을 들어 보이시고 그대에게 평화를 베푸시리라.’ 그들이 이렇게 이스라엘 자손들 위로 나의 이름을 부르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겠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제2독서: 야고보서4,13-15

사랑하는 여러분, 자 이제, “오늘이나 내일 어느 어느 고을에 가서 일 년 동안 그곳에서 지내며 장사를 하여 돈을 벌겠다.” 하고 말하는 여러분! 그렇지만 여러분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생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져 버리는 한 줄기 연기일 따름입니다. 도리어 여러분은 “주님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살아서 이런저런 일을 할 것이다.” 하고 말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루카12,35-40

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허리에 띠를 매고 등불을 켜 놓고 있어야. 혼인 잔치에서 돌아오는 주인이 도착하여 문을 두드리면 곧바로 열어 주려고 기다리는 사람처럼 되어야. 행복하여라, 주인이 와서 볼 때에 깨어 있는 종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 주인은 띠를 매고 그들을 식탁에 앉게 한 다음, 그들 곁으로 가서 시종을 들 것이다. 주인이 밤중에 오든 새벽에 오든 종들의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면, 그 종들은 행복하다! 이것을 명심하여라. 도둑이 몇 시에 올지 집주인이 알면, 자기 집을 뚫고 들어오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야. 너희가 생각하지도 않은 때에 사람의 아들이 올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National Eucharistic Revival

2023 National Eucharistic Revival 이 지난 성체 성혈 대축일에 시작되었습니다. 이 운동의 목표는 성체성사를 통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관계를 일깨움으로써 교회를 “새롭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3년 동안의 계획으로, 우리 가톨릭 신자들에게 영감을 주고 교육하며 통합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Pew Research Center에 따르면, 가톨릭 신자 중에서도 실제로 그리스도의 성체성사에 대한 진리적 존재를 믿는 사람은 31%에 불과합니다.

이 3년의 여정을 통해 우리는 믿음에 활기를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우리 믿음의 근원이자 정점인 주님께서 현존하시는 성체성사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이 운동에는 교구 부흥의 해, 2024년 National Eucharistic Congress (인디애나폴리스, 인디애나, 7월 17일-20일)와 국가 선교의 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2023년에는 우리 Our Lady of Mercy성당에서는 매 주 미사 중 공지사항 시간에 교육적인 "신앙상식" 시리즈를 발표할 계획이며, 이를 주보에도 공지할 예정입니다.

또한 주일학교와 유스그룹 학생들이 성체성사를 통해 예수님의 존재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젝트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외에도 강연 시리즈와 모든 교구 신자들을 위한 Night of Mercy행사 계획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National Eucharistic Revival 성체 기도문

오 성스러운 만찬

오 거룩한 성체여,
 그리스도께서 참으로 계시는 곳,
 그리스도 수난의 기억은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은혜로 가득 채우시어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저희가 얻게 하소서.

O Sacrum Convivium

O sacred banquet,
 in which Christ is received,
 the memory of his Passion is renewed,
 the mind is filled with grace,
 and a pledge of future glory is given to us.